

2017 새 설계

김성 장흥군수

“통합의학 특구 추진... 대한민국 건강 1번지 자리매김”



“장흥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기업유치 사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어졌습니다”

김성 장흥군수는 16일 “지난해 장흥은 ‘2016국 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외연 확장에 치중한 한해였다면 올해는 내실을 기하는 성장동력산업 분야에 올인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김 군수의 올해 첫 번째 목표는 현재 22개 기업 유지로 19.1%에 머물고 있는 ‘해당바이오식품 산업단지’의 분양률을 지역실정에 적합한 타깃기업 선정·유치 등을 통해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김 군수는 이를 위해 유치된 기업에 임차보증금을 최대한 평당 40%까지 지원해주고 공장등록 후 운영비에 대한 이자부문을 2년간 지원해주면서 세제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또 ‘정남진’ 우산도를 모 기업측과 제휴해 전남 남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지 조성한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다.

김 군수는 특히 “지난 2015년 10월 말 중단된 장흥 노력항~제주도(성산포항)간 쾌속여객선 운항을 늦어도 4월까지 재운항토록해 침체한 지역

해당바이오산단 기업 유치 박차

노력항~제주 쾌속선 운항 재개

친환경농업지역 50%까지 확대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와 함께 “올 7월 전국 최초 전문 한방병원인 ‘장흥통합의료원’ 개원에 맞춰 장흥을 통합의학 특구지정과 비임상센터 유치 등 클러스터화할 수 있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장흥을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 1번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군수는 올해 장흥은 도내 휴식과 치유의 문화관광지라는 점에서 탐진강 일원에 35억원을 들여 다목적 물놀이장 설치 등 관광명소화 사업을 통해 사계절 관광객이 먹고 머물고 체류하는 힐링 타운 인프라 구축에 열정을 쏟을 생각이다.

김 군수는 이어 올 10월에는 ‘제1회 화령포문화 축제’를 열어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12척을 인수받아 조선수군을 재건한 마지막 격전

지라는 역사테마장을 펼쳐낼 계획이다.

김 군수는 올해 농어촌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김 군수는 “활력있는 청정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유치된 전액(100%)을 유기농 농부지역으로 조성하고 군 전체를 50% 이상 친환경농업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소득 특화작목 생산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에게는 해양수산 보존 시책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다.

김 군수는 “올해 10억원을 들여 득량만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과 청정해역특구 지정을 위해 인공, 보성, 고흥군 등과 연계해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겠다”고 약속했다.

김 군수는 이와 함께 표고버섯 특산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가들에 대한 재배기술 강화해 전국 원목 표고버섯 증가 명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김 군수는 또 복지 장흥 이미지 차원에서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후원기금을 발굴해 10개 읍·면에 ‘Help Day’를 운영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희망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군수는 지난해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장흥군은 군 역사 이래 처음으로 시도한 국제행사인

2017년 주요 역점 사업은

- ▲해당바이오식품산단 분양률 50% 달성
- ▲노력항~제주 성산포항 쾌속선 재운항
-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 1번지 자리매김
- ▲먹고 체류하는 힐링타운 인프라 구축
- ▲농·어촌 활성화·해양보존 사업 강화
- ▲원목 표고버섯 증가 명성 확립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건강과 치유의 고장이라는 지역 이미지를 굳혔으며, 민선 6기 출범 당시 80억원이던 채무를 전액 상환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를 받은 것이 큰 성과로 꼽힌다”면서 “특히 2017년 보통교부세를 전년 대비 무려 257억원이나 증가한 1842억원을 확보하는 등 교부세 역대 최대 기록을 2년 연속 바꿔놓는 것도 지역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영암군 민속씨름단 창단

현대삼호중 씨름단 인수

설 명절 장사대회 첫 출전

영암군이 민속씨름단을 정식 창단했다. 민속씨름단이 역대 전하장사들의 축하 속에 창단을 알렸다.

영암군은 지난 13일 군청 왕인실에서 전남도, 영암군, 씨름협회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씨름단 창단식을 열었다. <사진>

특히 이날 창단식에는 통합씨름협회 김경수 상임부회장, 정인길 씨름발전 기획단장, 고창희 씨름단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와 이만기·이봉걸·이준희·이태현·이승

삼 등 역대 장사들이 총출동해 후배들을 축하했다.

영암군은 영암에 본거지를 둔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해 8월 해체 발표한 현대코끼리 씨름단을 인수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현대 코끼리 씨름단 출신으로 한라장사만 10번을 지낸 김기태(37) 감독을 사령관으로 영입했으며, 전하장사와 각급 장사 등을 지낸 정예 선수 13명, 황교훈 트레이너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고유 민속경기인 씨름을 보존·육성함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희기자 jbh@

장흥군 예산 4000억원 시대 열린다

3월 추경 856억원 더해 4003억원 편성

장흥군이 오는 3월 예산 4000억원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장흥군에 따르면 2017년 장흥군 예산 편성액이 4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장흥군은 오는 3월 예정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에 산정을 마친 결과, 856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예산 편성액 3147억원을 더하면 총 예산 400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

게 된 데에는 기획감사실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예산 확보활동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7년 보통교부세가 257억원이 늘어난 1842억원을 확보한 것도 이 같은 예산 규모 증가에 힘을 보탤다.

지난해에 이어 교부세 확보 역대 최대 기록을 2년 연속 갈아치운 장흥군은 지난해 ‘재무 제로화 원년’을 달성하며 재정 운영의 안정성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 농업인월급제 전지역 확대 시행

장흥군이 지난해 시범운영한 농업인월급제를 지역 전제로 확대 시행한다.

장흥군은 “지난해 시범운영한 농업인월급제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높아 올해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협 자체 매입에 출하할 비의 수량 및 품종 등을 약정한 후, 대금의 일부를 출하 전 일정기간 월별로 나눠 농협에서 농업인들에게 지급하

는 제도다. 대신 군에서는 농협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준다.

지난해는 장동, 장평면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월급 지급 실적은 346농가 1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장흥군은 이자보전금으로 3300여만원을 지원했다.

월급을 받은 농업인들 대다수는 부채상환, 영농자재구입, 생활비 등으로 월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군 도암면 마호마을에서 지난 14일 열린 ‘강진 겨울바다여행’ 소원탑 불 지피기 행사에서 강진원 강진군수 등이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바다여행’ 겨울축제 대박

가우도에만 2만명 찾아

강진군이 여행비수기인 겨울시즌을 돌파하기 위해 ‘겨울바다 여행’을 주제로 축제를 개최해 대박을 터트렸다.

강진군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지난 14~15일 이틀간 겨울남만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강진으로 대거 몰려왔다”고 16일 밝혔다.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추진중인 강진군은 올 첫 손님맞이 행사로 ‘강진 겨울바다여행’을 마련했으며, 전국에서 온 인파로 북적이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전남도 가고 싶은 섬 가우도를 가운데 두고 열린 이번 강진 겨울바다여행은 14일 오전 도암면 마호마을을 주무대 인근 소원탑 불 지피기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도암면 마호마을 박종기 이장은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몰려들기는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려 우리 마을은 물론 강진 전체가 활기에 가득 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틀에 걸친 이번 강진 겨울바다여행은 가우도 방문객만 2만명에 육박하는 등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다는 게 강진군의 설명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급, 사고 좋은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급매 - 17억 (일시불)
- 문의 H. 010-3605-5000

장/단기, 투자가치 좋습니다.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 씩
- 전원주택, 캠핑장, 펜션, 가든, 식당, 요양원 등 모든업종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